



건강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서 기 홍 건협서울지부 사무국장

1.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건강검사

1) 비전염성 만성질환

인간의 수명연장을 위한 인간과학이 발달되고 있는 이때 비전염성 만성질환(고혈압, 심장, 신장, 간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암등)이란 이른바 성인병(문명병)에 시달리며 살

고 있다.

성인병은 중년층은 물론 점차 젊은 나이층으로年少化하여 가며 수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러한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서서히 발병하여 별로 자각증상없이 진행되다가 만성에서 중증으로 악화되어 질병에 따라서는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급사하거나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들 질병의 발생요인으로는 유전적요인, 식습성(食習性)요인 불안 초조, 분노, 공포등의 심리적 요인, 그외에도 직업적 요인, 공해나 자연환경의 요인등으로 발생된다.

2)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추이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전체 국민의 이환율이나 사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 식생활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개선등으로 종래, 主死因이었던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이 격감되고 이에 대처해서 각종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중 약50%가 성인병의 위협에 직면했고 10대死因중 6대사인이 성인병에 의한것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며 우리나라도 최근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점차 선진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되어가고 있는데 다음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0대死因이 종래의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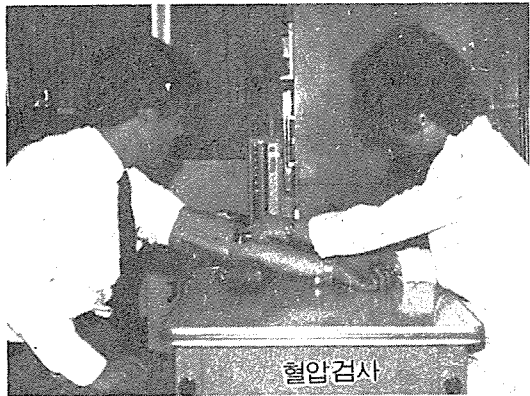
3) 건강검사의 중요성

건강검사의 의의는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유도에 있다.

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간기능 검사



혈압검사



빈혈검사



심전도 검사

년대 순위	나		국		미	국
	1920	1935	1938~42	1972	1972	
1	전염병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뇌출증	심장질환	
2	소화기질환	신경계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악성종양	
3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신경계및감각기관질환	결핵	뇌출증	
4	신경계질환	전염병	결핵	악성종양	재해	
5	전신병	감기	전염병	영아질환	폐렴, 기관지염	
6	순환기계질환	노쇠	순환기계질환	재해	당뇨병	
7	노쇠	순환기계질환	비노기, 생식기계질환	노쇠	영아질환	
8	비노기계질환	전신병	악성신생물및영양실조	폐렴, 기관지염	동맥경화증	
9	감기	비노기계질환	외국사망	위장염	간경변증	
10	각기	병인불명	병인미상	자살	폐기종, 천식	

왜냐하면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전염병처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에 질병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위, 1차적 예방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진단(조기발견)과 조기치료라는 2차적 예방법에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이로써 생명의 연장과 질병의 치유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건강검사의 필요성

모든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므로써 질병의 악화와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는 단기에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1) 자궁암 검사

한국인의 여성암중 그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질병은 자궁암이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만하면 완치할 수 있다.

자궁암은 발생부위에 따라서 경부암과 체암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경부암이 95%이며 5%가 체암이다.

진행과정을 1기에서 5기로 나누며 경부암의 경우 1기에서 발견하면 100%치유, 2기에서 82.9%, 3기에서 65.5%, 4기에서 35.1%, 5기에서 12.7%가 각각 치유가능하다.

이런점에서 볼때 정기적 검사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6개월에 한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검사

심장병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초기에 발견하면 이에 대한 유효한 약제로서 혈압을 조절하고 약화를 방지하여 예방이 가능하다.

검 사 법	검 사 종 목 별	검 사 목 적	질 환
요 검 사	요 당(Urine Sugar)	당 뇨 병	당 뇨
	요단백(Protein)	신 장 질 환	신 장
	요침사(Sediment)	신 장 질 환	신 장
혈 액 검 사	적혈구 용적(Hct)	빈혈, 영양상태	빈 혈
	혈색소(Hb)	빈혈, 영양상태	빈 혈
	혈구검사(w b c)	혈액질환 및 염증	기 타
	혈액형검사(Blood Type)	혈액형(ABO 및 Rh형)	기 타
생 화학 검 사	총단백(T. Protein)	영양상태, 간장질환	간 장
	알부민(Albumin)	영양상태, 간장질환	간 장
	G P T	간장질환	"
	G C T	간장질환, 심장질환	"
	LDH	심장질환	심 장
	크레스테롤(Cholesterol)	심장, 고혈압	고 혈 압
	요소, 질소(BUN)	신장질환	신 장
	크레아티닌(Creatinine)	신장질환	"
	혈당(Glucose)	당 뇨 병	당 뇨
	혈청학검사	HBs Ag:	B형간염 항원검사
E C G 검사	심 전 도	심장질환, 고혈압	심 장
세포진검사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자궁암 조기발견	자 궁 암

3) 당뇨병 검사

특이한 예방대책이 없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철저히 관리하므로써 질병의 경과를 좋게하고 합병증과 사망율도 줄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초기에 당뇨병을 검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아를 분만하게 되고 어린이들도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므로써 질병에서 지켜줄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감안해볼때 모든 질병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만이 최상의 예방대책이며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검사의 특징 및 검사종목

1) 검사의 특징

당 협회는 단시간내에 집단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모토로 하며 이상 소견자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유도하는 검사기관이다. 따라서 그 특징으로서는,

첫째: 검사시간의 단축이다. 1인당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이다. 이는 복잡한 수속이나 장시간의 검사 및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둘째: 검사 수수료의 저렴이다. 이는 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느 수가 보다도 저렴한 수가로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셋째: 각종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사계 권위사의 판독을 받아 처리되는데 이는 종합 병원의 특

진에 해당된다.

넷째 : 검사결과는 개인별 통보로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 주고있다.

2) 검사종목

본 협회에서 실시되는 검사종목은 다음과 같다. (별표2)

4.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의 건강체크를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시간, 경비, 검사기관의 원거리위치 및 장시간 대기등의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당협회에서는 이러한 수검자의 불편을 덜어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집단 검사이다.

1) 집단검사

○ 집단검사 및 검진차 현지출동

각 사업장을 비롯하여 모든 집단체가 대상이 되며 수검코저 하는 기관에서 당 협회로 수검신청 (서울지부 전화. 605-3104, 605-4057, 603-6129와 각시도지부 전화)을 하면 협의 및 홍보반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수검요령과 절차, 일정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각종 검사장비를 완비한 검진차를 현장에 출동시켜 각

직장에서 단시간내에 집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진차량의 현지출동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많을 때 출동한다)

● 검사결과 통보 및 유소견자 처리

검사결과 통보는 10일 이내에 각 수검자별로 통보되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전문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2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다.

2) 부속의원 내원자 검사

가족이나 친지 또는 개인이 수검코저 할 때에는 당협회 부속 의원에 내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가끔적이면 2중내원을 피하기위해 사전에 전화문의(집단검사시 수검신청문의 전화와 같음)를 하여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오면 번거로움등을 피할 수 있다.

그외 검사의 수속절차 및 결과 통보는 집단검사와 같다.

자기 건강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의사가 건강을 돌보아주는 시대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시대에 산다. 건강검사는 건강할 때 점검해야 한다. 자각 증상을 느껴거나 악화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져 할때는 이미 초기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만다.

그리고 건강검사는 주기적이고 정기적(6개월~1년)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즉, 건강검사를 하여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첩경이다.